



중국,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성시대

한 끼 식사 가격과 맞먹는 아이스크림 가격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면서 중국 내 많은 지역에서 고온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냉동고에는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출시되기 시작했으며 그중에서 20위안(한화 약 3,500원)이상인 아이스크림 종류도 흔히 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도 기존 새콤달콤한 맛뿐만 아니라 겨자 맛, 취두부 맛 등 자극적인 맛이 출시되었으며 일부 아이스크림 브랜드는 '무설탕' 컨셉으로 칼로리 부담이 적은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편의점에서 한 소비자는 6개입 체리 맛 아이스크림을 구입했다. 이 아이스크림은 35.5위안(한화 약 6300원), 한화로 개당 1,000원 이상이지만 개당 중량은 42g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가격은 보편적으로 10위안(한화 약 1,700원) 정도지만 20위안(한화 약 3,500원)대 제품도 많이 보인다. 「중국식품보」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 아이스크림 가격은 2~3위안(한화 약 500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가격이 몇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⑦ 중셴가오(钟薛高)와 나이셰더차(奈雪의茶)의 콜라보 아이스크림 제품

자료 징둥



○ 중쉐가오(钟薛高) 징둥온라인 쇼핑몰 개당 66위안(한화 약 12,000원) 판매 현황
자료 징둥

2018년 3월에 설립된 중국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중쉐가오(钟薛高)의 일부 제품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당 66위안(한화 약 12,000원) 또는 88위안(한화 약 15,500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출시되는 즉시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구매가 힘들어 일부 지역은 주문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또 일부 편의점에서는 같은 제품을 개당 200위안(한화 약 35,200원) 이상에 판매하기도 한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인기에 힘입어 일부 버블티 회사에서도 아이스크림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버블티 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하였다. 버블티 맛 아이스크림 가격은 약 15.8위안~18위안(한화 약 2,800원~3,200원) 사이로 버블티 한 잔 가격과 똑같이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3가지 맛 6개입 버블티 아이스크림 세트의 월 판매량은 7만개 이상이고, 세트 행사 할인을 통해 89.1위안(약 16,000원)에 판매되어 월 총 매출은 약 630만 위안(한화 약 11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을 선호한다.



1 멥니우와 썬즈송슈가 콜라보하여 제작한 수이비엔(随便) 견과 아이스크림

2 허루쉬에(和路雪)와 시차(喜茶)가 콜라보하여 제작한 버블티 아이스크림

자료 바이두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가격인상 방식도 다양

중국 「식품보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우유, 크림 등 원가가 80% 이상 인상이 되었고 2021년에는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비가 1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아이스크림의 가격대는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다. 단가가 2위안(한화 약 350원) 이하인 제품은 저가 제품으로, 3~10위안(한화 약 550~1,800원)인 제품은 중급 제품으로, 10위안(한화 약 1,800원) 이상인 제품은 고가 제품으로 분류된다. 아이스크림 기업은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 포장부터 원재료의 사용, 독특한 맛과 함께 하트형, 퍼프형, 화과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가격인상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마케팅 방법으로 식품생산기업 간 콜라보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명니우(蒙牛)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수이비엔(随便)과 중국의 견과류 식품업체 산즈송슈(三只松鼠)가 협력하여 공동 출시한 견과 아이스크림, 허루쉬에(和路雪)와 시차(喜茶) 및 나이쉐더차(奈雪的茶)가 협력을 통해 출시한 버블티맛 아이스크림 등이다. 이외에도 중쉐고(钟薛高)는 유명 주류브랜드 루저우라오자오(泸州老窖), 와하하 AD우유(娃哈哈AD奶), 허마(盒马) 등의 브랜드와 협력하여 각 시리즈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펼치고 있다.



Key Point

오늘날 중국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건강과 품질을 중요시 함에 따라 아이스크림 기업들도 소비자 수요에 맞게 원재료부터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식용첨가제와 탈지방분유 대신 무설탕, 무지방, 칼로리 50% 절감한 제품 등도 출시하고 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아이스크림시장의 발전은 아주 빠른 편이다. 2014년 중국 아이스크림 시장규모는 708억 위안(한화 약 12조 4600억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8년엔 1236억 위안(한화 약 21조 7536억 원)에 도달하였고 2019년 시장규모는 약 1380억 위안(한화 약 24조 2880억 원)으로 세계 1위에 도달하였다. 2021년은 1600억 위안(한화 약 28조 16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이스크림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자의 소비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비교적 저가의 아이스크림보다 가격이 높고 품질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아이스크림 메로나의 가격은 6개입 47.72위안(한화 약 8,500원)으로 개당 약 8위안(한화 약 1,400원) 정도이다. 빙그레의 PANGTOA(뽕또아)는 개당 18위안(한화 약 3,2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국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중국 아이스크림시장에서 중·고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수인산 품질에 비해 가격은 낮은 편이어서 이로 인한 가성비가 높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중국 아이스크림시장은 한국빙과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 빙그레 메로나 중국 전자상거래 판매
- 2 빙그레 PANGTOA 아이스크림 징동 판매

자료 징동
<https://m.blog.naver.com/bingsmile>

2

